

당신의 필체에 인생이 담겼다





‘획’ 아무렇게나 그어 버린 서명, 귀찮아서 제3자에게 위임한 서명, 장난으로 낙서한 서명... 무심코 쓴 서명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면? 여기, 글자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필체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보인다는 필적학자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와 다툼이 될 수 있는 문서를 종합과학으로 다뤄 진위를 판별하는 서한서 예일문서감정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디지털 시대에도 나를 알리는 지문 가운데 하나로서 필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영수증, 그 안에 흘러 적은 서명을 다시 들여다보자.

글 정채희 기자 | 사진 서범세 기자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

“글씨, 소통이 아닌 수양의 도구”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기, 글씨의 마법을 믿는 사람이 있다. 글씨에는 뇌의 흔적이 들어 있어 그 사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황당무계한 주장이 국내 최고 필적 전문가 입에서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채희 기자 | 사진 서범세 기자

공부 잘하는 글씨, 일 잘하는 글씨, 합격하는 글씨, 존경받는 글씨, 큰 부자가 되는 글씨, 리더가 되는 글씨, 신뢰를 얻는 글씨가 따로 있다면 당신은 글씨체를 바꿀 의향이 있는가.

국내 최고 필적 전문가로 알려진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는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방법 중에서 글씨 연습만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쉬우며, 정밀한데 인생을 바꿀 만한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단순 이론이 아니다. 오랜 시간 그가 지켜본 결과물이다.

구 대표는 2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면서 살인범, 조직폭력배들의 글씨에서 특이점을 발

견하고, 글씨와 사람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독립운동가와 친 일파의 친필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만 무려 850점에 달한다. 필체가 의미하는 것을 찾아 필적학을 심도 있게 연구한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글씨체에는 성격, 성장 과정, 취향, 질병, 빈부가 집약돼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써 글씨는 끝났을 지 모른다. 그러나 인격 수양으로써의 글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간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를 내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책인가요.

“글씨 분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08년부터 기획했는데, 글씨체를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오늘날 흔히 글씨 쓰는 것을 ‘서예’라고 생각하는데 ‘글씨=서예’가 되면서 마치 글씨가 예술이고, 멋있게, 보기 좋게 쓰는 것만이 글씨를 잘 쓰는 것으로 치부됐어요. 그렇지 않은 글씨들이 날아간 것이죠. 글씨는 소통의 수단으로 시작했지만, 수많은 선인들이 글씨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소통보다 인격 수양의 수단으로써, 내면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서예라고 칭하면서 글씨를 멋있게 쓰는 것 이외에는 글씨 연습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르면서 소통의 수단으로써 글씨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바꾸는 수단으로 글씨만 한 게 없습니다. 이 점을 알리고 싶었어요.”

글씨가 인격 수양으로써의 수단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인격 수양을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종교, 참선, 운동, 독서 등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사실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이죠. 글씨는 간명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이런 글씨를 써라’, ‘공부를 잘하려면 이런 글씨를 써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전달할 수 있지요.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방법 중에서 글씨 연습만 한 것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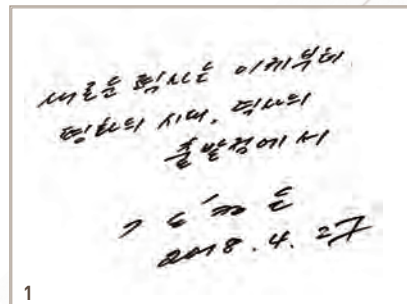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어떠한 원리일까요.

“원하는 인간상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글씨체로 바꾸어 가는 과정은 글씨를 수양의 도구로 삼아 자기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예를 들어 과잉행동장애(ADHD)를 지닌 사람의 경우 글씨 쓰기를 통해 장애를 극복해 효과를 봅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다 구체화·세분화시키고 싶습니다. 첫째 방법은 자신이 모델로 삼는 사람의 필체를 흉내 내는 방법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가 쓴 글씨를 본뜬다. 이때 비교군이 확실해야 하는데 정말 누구나 인정할 만한 롤 모델이어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둘째 방법은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필적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바꿔 나가는 방식입니다. 글씨 크기, 둥글기, 필체의 압력(필압) 정도, 방향, 간격,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을 찾아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먼저 글씨 크기를 생각해 봅시다. 큰 글씨는 열정, 열광, 걱정, 성취 욕구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취적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표현 욕구도 강한 편입니다. 밝고 거리낌 없이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리더나 연예인, 정치인 중에 큰 글씨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글씨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글씨가 작은 사람은 공격적이거나 무모한 행동을 싫어하고 무리하지 않으며 소극적이고 안전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글씨를 쓰는 직군으로는 과학자나 발명가, 편집자, 엔지니어, 수학자 등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사려 깊어지고 조심스럽게 되고 행동이나 사고에 제약을 받으면서 글씨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씨의 방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글씨와 내려가는 글씨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글씨의 기울기는 대개 기분, 마음가짐, 감정을 나타냅니다. 기초선이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패가 많은데 마이클 잭슨과 타이거 우즈의 글씨체를 한 번 보십시오. 이보다 더 극적인 예시가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필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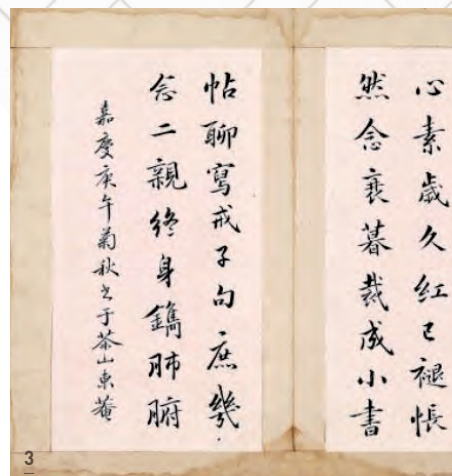


부자의 글씨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구 필적학자는 중앙일보 '홍병기의 CEO탐구'에서 CEO 다수의 글씨체를 분석한 이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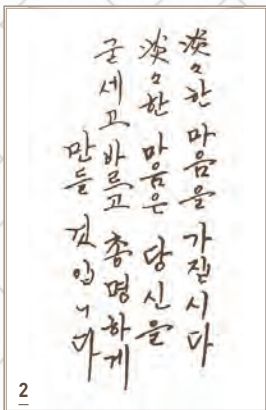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부자의 특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부자들은 대개 일을 잘하고, 인내심이 뛰어나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절약정신도 투철하고요. 보통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고집도 있지만 융통성도 있습니다. 매우 각진 글씨를 쓰는 사람은 강직하지만 완고해서 융통성이 없고, 글씨에 모가 나지 않고 마무리가 약한 사람 역시 융통성은 있지만 계획성과 끈기가 부족해 번 돈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서명을 보면 글씨에 힘이 있고 마무리 부분이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미음(ㅁ)’의 오른쪽 윗부분은 둥글게 하고, 오른쪽 아랫부분은 닫는 것을 유념해서 보세요. 고 정주영 창업주의 글씨도 이와 유사합니다. 또한 글자 간격이 좁은 것도 특징입니다. 이병철, 정주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석유 재벌 록펠러 역시 글자 간격이 좁은데 이는 적극적이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모음을 길게 쓰거나 글자의 끝부분을 꺾어 쓰는 것도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쓰는 서체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며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특징이 반영된 것이지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고 정주영 회장의 글씨를 따라 쓰기를 추천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어떤 글씨체가 필요한가요.

“작은 글씨는 빠른 머리 회전, 집중력, 논리력 등 정밀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토머스 제퍼슨, 아인슈타인 등의 글씨를 보면 작고 균일합니다. 글씨 크기는 한글 기준으로 높이 8mm 이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작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크기, 기울기, 방향 등이 일정하면 논리적이고 충동성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씨도 대표적입니다. 글씨마다 같은 간격을 유지하는데, 재주가 있고 논리적이며 균형 감각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간혹 모차르트나 톨스토이 같은 천재들의 글씨는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글씨 속도가 빠르고, 비범한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쁜 글씨는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르면서 소통의 수단으로써 글씨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바꾸는 수단으로 글씨만 한 게 없습니다.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글씨
도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독아 있는 우상향 글씨체. 연합뉴스
제공.

2 고 정주영 회장의 글씨 '마음을',
'당신을', '총명하게', '만들'에서 특징이
잘 드러나므로 이 부분을 따라 쓰면
좋다. 쌤앤파커스 제공.

3 다산 정약용의 글씨
필적으로 접근해도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다산의 글씨. 전남 강진군
제공.

이런 글씨체를 익혀야 한다면, 피해야 하는 글씨체도 있을까요.

“어떤 글씨체든 나름대로 장단점을 지니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글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불규칙하거나 알아보기 힘든 글씨, 행 간격이 지나치게 좁은 글씨,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지는 글씨입니다. 이런 글씨체는 대개 범죄자에게서 많이 나타나 는 글씨체이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재들의 글씨 또한 알아보기 어려운 경 우가 있지만 이 역시 정밀하게 비교해 보면 범죄자나 무능한 사람들의 글씨와는 판이하 게 다릅니다. 특히 우하향하는 글씨체는 알코올 중독자나 우울증이 깊은 사람들이 가 진 글씨체이기도 합니다. 독재자 히틀러, 러시아의 라스푸틴 등의 서체가 우하향하는 서 체였습니다.”

필적학은 과학적 뒷받침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글씨와 사람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낡은 이론이 아닙니다. 공자, 주자, 이황, 송 시열 등 동양의 선인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아인슈타인, 셰익스피어, 괴테 등 서양의 선 인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글씨의 훌륭함을 주장했습니다. 글씨 연습을 통해 사람의 내면 을 바꾸는 방법은 이미 동양에서는 3000년 동안 그 효과가 입증됐으며, 프랑스에서는 실제 20세기 초반부터 글씨를 통해 심리를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나 알코올 중독 환자의 우하향 글씨를 바로 쓰게 하는 글씨 교정이 대표적 인 사례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가로선을 길게 만들면 보다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인내심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장에 반기를 드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 분석과 다른 경우 근거를 들어 논쟁하자고.”

디지털화되며 글씨를 직접 쓰는 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약이 대중에게 많이 안 팔린다고 해서 그 약의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 닙니다. 글씨도 그렇습니다.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써 글씨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있지만, 인격 수양의 수단으로써 글씨의 중요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마저 포기하기에는 (글씨의 기능) 너무 아깝 지 않겠습니까?”

글씨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매일 글씨 연습을 하면 됩니다. 하루 20분, 단 6주간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롤 모델의 필체를 따라 쓰거나, 필체를 부분적으로 바꿔 쓰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롤 모델의 서체와 비슷해졌다면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 니다. 백년대계도 아닙니다. 단 6주라면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¹⁰

구본진 대표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21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살인범, 조직폭력배의 글씨에서 놀라운 사실 을 발견했다. 그들의 필체가 일반인들과는 달랐다는 점이다. 필체와 사람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 을 알게 된 뒤 필적학의 세계에 입문했다. 2017년 10월 국방부 요청으로 북미 정상회담 글씨로 한반도 정세 를 예측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 제1호 필적학자로 활약하고 있다.

서한서 감정사

“필체가 수백억 원대 재판 방향을 바꾸죠”

“2개 필적은 상이한 것으로 감정됩니다.”

추리물을 보며 짜릿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글자의 형태를 두고 감정물과 대조물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필적감정’은 전통적인 과학수사의 한 방법이다. 대충 끼적인 서명이 당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채희 기자 | 사진 서범세 기자

물건을 사고 직원에게 대리한 서명, 날림자로 대충 끼적인 서명 등 그간 아무렇게나 적고 버린 서명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면 믿어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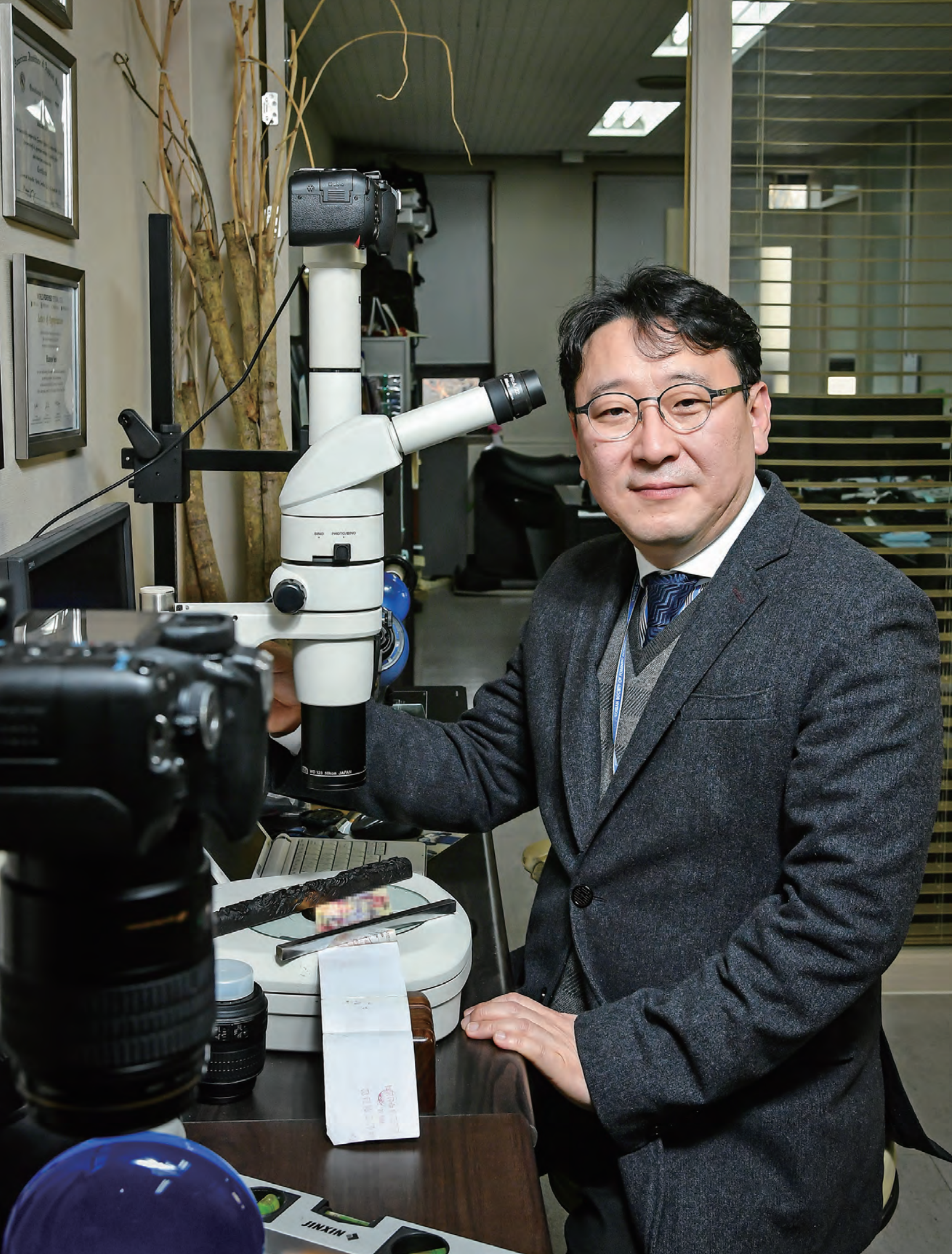
최근 법률행위에서 도장, 인감만큼이나 서명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서명의 필적감정이 점차 중요한 행위로 부각되고 있다. 카드사용 전표나 회사 서류 등의 서명을 비교해 서명의 주체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내가 무심코 쓴 서명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15년 필적감정 전문가 서한서 예일문서감정원 원장이 말하는 필적감정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필적감정이란 무엇인가요.

“필적학이 필체로 성향이나 성격을 파악한다면, 필적감정은 글자의 형태를 두고 감정물과 대조물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업계 용어로 흔히 ‘이동(異同)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필적감정(문서감정)은 법과학의 한 분야로서 국립과학수사원(이하 국과수)이나 대검찰청에서도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과학수사의 방법을 기초로 전문성과 법률적 지식, 숙련된 기술, 법과학적 지식 및 화학, 물리 등의 이공학 지식 등 다양한 학문이 응용된 종합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적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가 지금 기자님께 ‘본인의 이름을 10회 써 보세요’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신경 써도 10번 다 똑같이 쓰지는 못할 겁니다. 간격, 크기, 연결 여부 등이 틀리기 마련이죠. 그럼 무얼 보고 필적감정을 할 수 있느냐. ‘기억(-)’을 써도 ‘가’를 쓰는 기억과 ‘고’를 쓰는 기억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글자의 위치, 각도, 길이, 크기, 비율, 필압(筆壓) 정도 등 자획 구성과 형태를 살펴 특징을 비교합니다. 필적에는 개인에 따라 항상성과 회소성이 존



재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자료와 대조 자료 사이의 동일 여부를 식별합니다. 각 식별 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두 자료 사이에 희소성이 높고 항상성이 있는 특징을 알게 될 때에는 두 자료의 필적은 같은 인물이 쓴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면 희소성과 항상성의 특징이 인정되지 않고, 감정 자료에 없는 희소성이 대조 자료에 있을 때에는 이필(異筆)이라고 분석합니다.”

필적감정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감정을 받으려는 문서를 감정물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필적인지 혹은 본인의 필적인지 의심이 되는 감정물이지요. 이 감정물을 분석하기 위해 비교할 수 있는 필적이 필요합니다. 시필(감정사 입회하에 문제가 되는 필적을 당사자가 직접 수회 작성)과 평소 필적(평상시 사용한 수첩, 일기장, 각종 계약서 등)으로 필적감정이 가능합니다.”

주로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전문 감정인이 맡는 사건은 형사·민사사건으로 나뉩니다.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발견되는 필적 대부분은 국과수에서 분석합니다. 민간 감정인은 주로 법원 관련 업무를 맡는데, 법원에서 증거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의뢰가 들어옵니다. 매년 법원의 전문 감정인으로 등록돼야 사건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원고 또는 피고가 먼저 의뢰를 해 오는 경우입니다. 민사사건은 상속 문제, 재산분할 문제, 차용증, 보험청약서, 유언장과 관련된 사건이 주를 이룹니다.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경우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몇천억 원대 단위도 있습니다. 연간 총 200~300여 건의 감정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끼적인 서명도 필적감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의 서명필적도 가능합니다. 물론 비교할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용 전표나 은행통장 개설 시 서명, 회사 서류 등의 서명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필체가 줄어드는 시대, 필적감정 분야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워드를 많이 쓰면서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적감정은 사라지는 영역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중요한 서류는 여전히 자필서명을 많이 하고 있으며, 지면에 하지 않더라도 전자패드에서 서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에 게시된 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 문자메시지 등 문체를 분석하는 문서감정 역시 필적감정과 동일하게 개인 식별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지식검증 논란’이 문서감정의 단적인 예시입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경우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몇천억 원대 단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패드에서 서명을 하는데, 이 역시 감정 대상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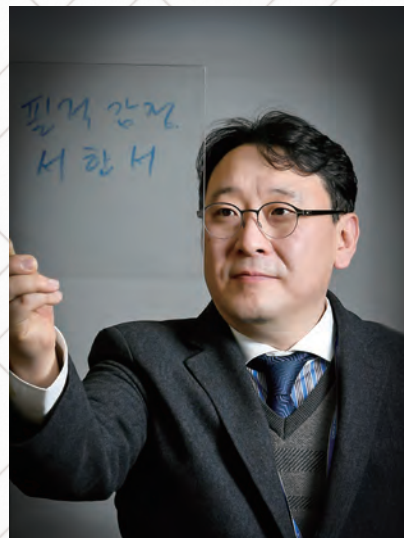
“네. 업계에서도 전자서명 필적감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일반적인 종이와는 달리 기기 종류에 따라 분석이 달라집니다. 필압의 여부, 첫 필획이 시작해 끝날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등의 분석을 통해 전자서명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의뢰가 오면 시필 역시 전자서명에 받아 감정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선을 찍 굵는다는지, 매대에서 점원이 대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향후 무성(無聲)하게 쓴 서명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자기만의 대조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조물의 양과 질이 좋다면 그로 인해 더 신뢰도 높은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필적감정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필적감정을 하는 데 있어 100% 확실한 판단은 없습니다. ‘유사하다’, ‘추정된다’, ‘사료된다’, ‘가능성이 있다’ 등의 표현을 씁니다. 그럼에도 신뢰도는 10명의 감정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감정물을 분석했을 때, 9명에서 9.5명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대조물이 적절하지 못할 때에는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국내 필적감정사의 가장 큰 사건으로 여겨지는 ‘김기설-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그 사례입니다(1991년 노태우 정권 당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기설의 친구였던 단국대 화학과 재학생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 2010년에 강 씨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판결 받았지만, 감정인이 잘못된 시료로 객관적이지 못한 감정을 한 사례였습니다. 감정인이라면 대조물의 부족 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감정물의 필적과 비슷한 글자만 따온다거나 하는 등 객관적이지 못한 시선으로 감정을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저 역시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필적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데 동의하나요.

“개인 식별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백억 원대를 놓고 다투게 되는데, 이때 필적감정이 사건의 방향을 제시해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등과 같은 미제사건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의 의뢰를 받은 후 실제 해당 범인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건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어 뿌듯합니다.”¹⁰



서한서 감정사는...

예일문서감정원장이자 서울고등법원 외 전국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의 문서감정인으로 등재돼 있다. 서감정사는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과학수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충남대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겸임 교수로 활동했다. 필적·인명·문서·지문감정 등을 담당한다.